Korean J Relig Educ 종교교육학연구
Vol. 86, pp. 157-175, September 2026 pISSN 1229-6627
https://doi.org/10.58601/kjre.2026.09.30.08 eISSN 2672-1767

The Crisis of Human Agency in the Era of Algorithmic Nudging and Universit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ocusing on Hebrew Holistic Anthropology

Eunyoung Cho[1], Choongryeol Lee[2*]
[1,2]Sahmyoo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AI-driven algorithmic nudges erode democratic deliberation by exploiting users' cognitive biases, and to introduce Hebrew holistic anthropology as an ontological foundation for restoring university students' agency in the age of AI.

[Conten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threefold crisis caused by algorithmic nudges-instrumentalization of existence, loss of moral autonomy, and erosion of rational deliberation-and counters each through the *imago Dei*, the tree of knowledge, and disputation with Yahweh, which ground relational dignity, responsible free will, and deliberative capacity. On this basis, it proposes a "holistic literacy" and "disputation community" model for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lgorithmic nudges reduce humans to data and bypass reflective thinking, whereas Hebrew holistic anthropology provides an ontological basis for resistance. Accordingl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AI era must move beyond digital skills training toward a humanities-theology-based approach cultivating critical deliberation and public responsibility.

[Keywords] Algorithmic Nudge, Hebrew Holistic Anthropology, Holistic Literacy, Disputation Communit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Universities

*** Corresponding author** Choongryeol L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ahmyook University)
E-mail : sevenlee94@sy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AI 알고리즘 넛지의 주체성 위기와 대학 민주시민교육: 히브리 통전론을 중심으로

조은영[1], 이충열[2*]
[1]삼육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2]삼육대학교 신학과 조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AI 알고리즘 넛지가 사용자의 인지적 편향을 기반으로 선택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민주적 숙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철학적·존재론적 인간 이해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히브리 통전론을 도입하여 대학생의 주체성 회복 가능성을 탐색하고, AI 시대 대학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넛지가 인간 주체성에 초래하는 위기를 존재의 도구화, 도덕적 자율성의 약화, 이성적 숙의의 침식이라는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히브리 통전론의 핵심 개념인 '하나님의 형상', '선악과 모티프', '야훼와의 변론'을 각각 관계적 존엄성, 책임지는 자유의지, 이성적 숙의 역량의 근거로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기능적 미디어 교육을 넘어서는 '통전적 리터러시' 개념을 제안하고, 상반된 관점에 대한 의도적 노출, 증거 기반 숙의, 공적 책임 표명을 핵심 절차로 하는 대학 교양교육용 '변론 공동체' 모델을 구성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알고리즘 넛지는 인간을 데이터 생산 단위로 환원하고 선택의 책임 구조를 약화시키며 성찰적 사고를 우회함으로써 민주적 숙의 역량을 침식한다. 둘째, 히브리 통전론은 인간을 관계적 존엄성, 책임지는 자유의지, 이성적 숙의 역량을 지닌 통전적 존재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알고리즘 조종에 저항할 존재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AI 시대의 대학 민주시민교육은 통전적 리터러시와 변론 공동체 모델을 통해 비판적 숙의와 공적 책임을 체득하는 인문·신학 융합형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주제어] 알고리즘 넛지, 히브리 통전론, 통전적 리터러시, 변론 공동체, 대학 민주시민교육

Received August 07, 2026 / **Revised** September 07, 2026 / **Accepted** September 09, 2026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알고리즘은 더 이상 단순한 편의 도구가 아니다. 무엇이 지식으로 만들어지고 퍼져나가며 소비되는지, 그 전 과정을 사실상 설계하고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장치로 자리 잡았다. 이 변화의 한복판에 놓인 세대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자란 대학생 세대다. 2024년 자료에 따르면 18~25세 청년층의 84%가 소셜 미디어를 정기적으로 이용한다(Chung, 2025: 2). 문제는 이들이 정작 알고리즘이 자신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성찰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그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접하느냐가 아니라, 플랫폼이 이용자의 체류시간과 참여도를 극대화하려는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를 배열한다는 사실이다(Rodilosso, 2024: 3-7). 사실 여부나 공적 가치보다 공유될 만한지, 감정을 자극하는지를 우선시하는 이 최적화 방식은 이용자가 자신이 좋아할 정보만 계속 접하게 만드는 필터버블(Filter Bubble)을 만들어낸다. 개인은 필터버블이 반복 노출되는 환경 안에서 진실을 왜곡하여 인식할 수 있다.

필터버블 안에서 개인의 확증편향은 혼자만의 현상으로 그치지 않는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의 믿음을 증폭시키는 에코챔버(Echo Chamber)로 확대된다. 이 안에서는 반대 의견에 대한 합리적 비판 대신 감정적 거부감이 반복 학습된다. 그 결과 왜곡된 메시지도 반복되면 객관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어지면서 양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집단극화는 정치적으로 온건한 입장이 설 자리를 없애고, 사회 전체를 양극단으로 갈라놓는다(Rodilosso, 2024: 4-7). 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노출되고, 상호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Dewey의 숙의민주주의(Dewey, 1916: 81-99) 및 Nussbaum이 강조한 정치적 공감 능력을 무너뜨린다(Nussbaum, 2013: 3-45). 결국 단순한 여론 왜곡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존재론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그 답은 행동경제학의 넛지(Nudge)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Thaler & Sunstein, 2009: 1-14). 겉으로는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면서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넛지의 원리인데,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이 이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AI와 머신러닝이 결합한 알고리즘 넛지는 이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해 최적화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아날로그적 넛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넛지 윤리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알고리즘 넛지는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시스템 2를 우회한다(Kuyer & Gordijn, 2023: 195-210). 대신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 1의 허점을 파고들어 판단을 은밀히 유도한다(Kahneman, 2011: 19-45). 이런 방식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과 장기 목표를 스스로 성찰하고 설계하는 능력, 즉 자기-구성적 자율성을 근본적

으로 훼손한다(Sunstein, 2014: 35).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율적 판단 주체가 아니라, 플랫폼의 수익 구조에 종속된 수동적 반응체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알고리즘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훼손하는지는 잘 밝혀왔다. 그러나 인간이 왜 알고리즘의 선택 설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존재론적·규범적 근거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Santoni de Sio & Mecacci, 2021: 1057-1065). 즉 알고리즘 조작은 나쁘다는 결론은 있지만, 왜 나쁜가를 뒷받침할 인간관은 비어 있는 셈이다. 여기서 학술적 공백이 드러난다. 이 이론적 공백은 한국 교육 현장의 실천적 난제로 이어진다. 교육부는 AI·디지털 전환과 민주시민교육을 대학 교육 혁신의 두 축으로 제시했다(Ministry of Education, 2025: 1). 그러나 기술 도입과 주체성 함양이라는, 자칫 상충할 수 있는 두 목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연구는 AI 시대의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주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AI라는 비인간 행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역동적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Cho, 2026: 153). 그런데 이러한 전환이 기술에 단순히 적응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으려면, 먼저 AI에 압도되지 않는 인간 주체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성찰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Jung, 2025: 48-49).

특히 대학생은 비판적 지성과 자율성을 확립하여 시민사회로 진입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시급히 필요한 대상이다. 이들은 정보 습득, 정치적 견해 형성, 인간관계 유지의 상당 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의존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행동 데이터는 오히려 플랫폼의 표적이 되어, 정체성과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다. 따라서 대학의 민주시민교육은 디지털 기기 활용법이나 미디어 비판 지식 전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알고리즘이 설계한 선택 환경의 조작성을 스스로 알아채고 저항할 수 있는 존재론적 힘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교육의 중심이 도덕적·철학적 차원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알고리즘 넛지로 와해되는 인간의 존엄성, 책임지는 자유의지, 그리고 이성적 숙의 역량을 회복할 수 있는 철학적·신학적 대안으로 히브리 통전론의 사유 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Wolff, Moon trans., 1976: 24-149). 히브리 통전론적 사유 체계의 핵심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는 선언(Gen. 1:26-27)은 인간이 플랫폼의 이윤 창출을 위한 데이터나 수동적 도구로 환원될 수 없는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선포한다. 둘째, 이러한 존재론적 존엄성은 기계적인 순응이 아니라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을 지는 행위를 통해 발현된다. 알고리즘 넛지는 은밀한 행동 유도를 통해 선택의 환상만을 제공하고 인간의 책임을 박탈하지만, 에덴동산의 선악과 모티프(Gen. 2:15-17) 및 구약의 생명 선택 촉구(Deut. 30:19)는 통제된 온실 속의 강요된 유도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결과를 명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결단하여 온전히 책임지는 진정한 자유의지의 모델을 보여준다(Craigie, 1976: 356-366). 마지막으로, 이처럼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주체는 맹목적인 반응체가 아니기에 창조주 앞에서도 합리적으로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구약 선지서에 자주 등

장하는 야훼와 그분의 백성 간의 변론 모티프는, 필터버블과 에코체임버가 마비시키는 인간의 합리적 비판 능력과 숙의 역량의 원형을 가장 잘 드러낸다.

본 연구가 히브리 통전론에 기초한 이 세 가지 성서적 개념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이 알고리즘 넛지가 유발하는 인간 소외의 세 가지 층위-존재의 도구화, 도덕적 책임의 박탈, 이성적 숙의의 마비-와 구조적 대칭을 이루며 그 문제에 대한 신학적 해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삼중 구조가 AI・디지털 전환 시대의 대학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규범적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가 시도하는 바는 이 개별 성서 본문들의 재해석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책임지는 자유의지, 야훼와의 변론은 성서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주제이며, 넛지 비판 또한 행동경제학과 기술윤리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다만 이 세 영역-성서적 인간론, 행동경제학적 넛지 비판, 민주시민교육-을 상호 연관 속에서 다루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점에 주목하여 세 영역을 교차적으로 검토하고, '통전적 리터러시와 변론 공동체'라는 실천적 교육 모델로 연결해 보고자 한다.

Ⅱ. 알고리즘 넛지와 인간 주체성의 위기

1. 행동경제학과 넛지

넛지 개념은 Thaler & Sunstein(2009)이 제시한 것으로,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형식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특정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선택 설계를 가리킨다. 이 개념이 이론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Kahneman(2011)의 이중 처리 이론이 있다. 인간의 사고는 빠르고 직관적이며 자동적인 시스템 1과, 느리고 의식적이며 논리적인 시스템 2로 구분된다. 넛지 설계자들은 본래 이 통찰을 선의로 활용하고자 했다. 예컨대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과일을 눈높이에 배치하는 방식처럼, 시스템 1의 습관적 반응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살짝 밀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 넛지의 이중성이 있다. 시스템 1을 표적으로 삼는 개입은 설계자의 의도가 선한지 악한지와 무관하게, 원리적으로 당사자의 의식적 숙고를 우회한다는 구조를 갖는다. 넛지 윤리학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넛지가 제기하는 윤리적 쟁점을 자율성, 복지, 장기적 부작용, 민주주의라는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 중 민주주의와 관련한 문제-예컨대 민주주의 숙의-가 가장 심층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탐구되어 왔다고 지적한다(Kuyer & Gordijn, 2023). 본 연구는 이 지적에서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제기한다. 넛지의 구조적 핵심은 시스템 2의 숙고를 우회한다는 데 있으며, 이 우회의 구조 자체는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과 무관하게 작동된다. 넛지가 공공정책의 선의의 도구로 쓰이든, 플랫폼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업적 도구로 쓰이든, 우회의 방식은 그대로이고 다만 그 결과에 대한 목적만 달라질 뿐이다.

문제는 여기에 AI가 결합될 때 발생한다. 전통적인 정책 넛지는 설계자가 소수이고 개입 방식이 고정되어 있어, 그 우회의 정도와 방향을 외부에서 검토하고 견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반면 AI와 결합한 알고리즘 넛지는 이용자 개개인의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개입을 계속 정교화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우회 구조가 훨씬 크고 감지하기 어려운 규모로 작동한다. 즉 우회라는 메커니즘 자체는 넛지 일반에 내재한 문제이지만, 그 메커니즘이 상업적 목적 및 실시간 학습 능력과 결합할 때 통제와 견제가 무력화된 채 증폭된다. 이 지점이 바로 알고리즘 넛지가 일반 넛지보다 더 심각한 민주주의적 위협으로 다뤄져야 하는 이유다.

2. 알고리즘 넛지의 작동 방식과 에코챔버 현상

디지털 플랫폼은 이 넛지의 구조를 이윤 창출의 알고리즘으로 정교화했다. 플랫폼의 최적화 목표는 이용자의 진실 추구나 공적 숙고가 아니라, 체류시간과 참여 지표의 극대화다(Srnicek, 2017: 43-75). 이 목표에 따라 알고리즘은 사실성이나 공적 가치보다 공유 가능성과 정서적 자극을 우선하는 콘텐츠를 학습하고 추천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용자는 이미 자신의 기존 입장을 반영한 검색어와 클릭 패턴으로 자기생산적 필터버블을 먼저 형성하며, 알고리즘은 이 신호를 감지해 유사한 콘텐츠의 노출 빈도를 증폭시킨다(Ekström et al., 2024: 878-882). 이렇게 형성된 확증편향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유사한 신념을 가진 이용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에코챔버로 사회적 차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증폭 과정이 인지적이지 않고 정서적으로 매개된다는 점이다. 분노와 같은 정서 상태는 동일한 의견을 재차 탐색하도록 개인을 동기화하며, 이는 집단 간 경계와 적대감을 심화시킨다(Rodilosso, 2024). 그 결과가 집단극화이며, 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노출과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하는 숙의민주주의(Dewey, 1916: 81-99)와 정치적 공감(Nussbaum, 2013: 3-45)의 토대를 침식시킨다.

3. 주체성 상실의 3단계 메커니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알고리즘 넛지가 인간 주체성을 와해시키는 과정은 다음 세 단계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인간 존재를 도구화하고 데이터로 환원하는 단계이다. 알고리즘 넛지 체제 안에서 인간은 더 이상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참여 지표를 산출하는 데이터 생산 단위로 취급된다. 이용자의 클릭, 체류시간, 감정적 반응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최적화

함수에 입력되는 변수로 환원된다. 이는 목적으로서의 인간이 수단으로서의 인간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도구화의 과정이다.

둘째,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의 박탈 및 은밀한 조종의 단계이다. 자유로운 선택의 외양을 유지한 채 인지적 편향을 체계적으로 악용하는 이 숨겨진 손은, 개인이 자신의 정신 모델과 장기적 목표를 주체적으로 성찰하고 설계하는 자기-구성적 자율성을 손상시킨다(Sunstein, 2014: 35). 선택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실질적 책임의 귀속 근거, 즉 내가 숙고해서 선택했다는 사실을 은밀히 잠식시킨다는 점에서, 이는 자유의 형식만 남고 자유에 따른 책임은 상실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셋째, 이성적 숙의의 마비 및 시스템 2의 우회 단계이다. 넛지 윤리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알고리즘 넛지는 합리적·비판적 숙고를 담당하는 시스템 2를 우회하도록 작동한다. 대신 빠르고 자동적인 시스템 1의 취약성을 표적 삼아 판단을 은밀히 유도한다(Kahneman, 2011: 19-45). 이성적 숙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박탈된다는 점에서, 이는 무능력이 아니라 마비에 가깝다.

이 세 단계는 순차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 동시에 작동하며 상호 강화하는 형태를 보인다. 데이터로 환원된 인간의 존엄성은 상실되기에(1단계), 그의 선택에 대한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이 자동 박탈되며, 은밀히 조종된 개인의 선택은(2단계) 필연적으로 숙의 과정이 우회된 결과(3단계)로 나타난다. 또한 숙의 능력은 더 이상 데이터로 환원된 인간에게 무용지물이며, 숙의 과정이 우회되어 선택은 실질적 책임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바로 이 삼중 구조야말로, 서론에서 제기한 왜 인간이 알고리즘의 선택 설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는가라는 존재론적 물음에 답하기 위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의 정초이다.

Ⅲ. 히브리 통전론: 주체성 회복의 존재론적 근거

히브리 통전론은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전인적 존재로 이해한다(Wolff, Moon trans., 1976: 24-29).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Gen. 2:7), 인간은 몸과 영혼이 결합된 이중적 존재가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 전체'로 규정된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과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Ps. 84:2)라고 노래할 때에도, 이는 인간 전체를 두 측면에서 부르는 히브리적 표현이다. 이러한 통전적 이해는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규정하는 플라톤적 이원론이나, 인간을 '사유하는 실체(*res cogitans*)'로 축소하는 데카르트적 합리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히브리 성서에서 인간은 사유, 감정, 의지, 신체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통일성을 이루는 존재이며, 이러한 통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타자 및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온전히

실현된다.

이러한 통전론적 인간 이해는 히브리 성서 안에서 세 가지 핵심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음 받은, 관계성을 반영한 존엄한 존재이다. 이 존엄성은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선악과로 상징되는 도덕적 자율성, 곧 책임지는 자유의지를 통해 발현된다. 나아가 인간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자가 아니기에, 자신의 선택과 책임에 대해 창조주 앞에서조차 합리적으로 묻고 응답할 수 있는 이성적 숙의(변론)의 주체로 부름받았다. 그러나 알고리즘 넛지는 이 세 층위를 정확히 역방향으로 침해한다. 즉, 인간을 데이터로 격하하여 존엄을 도구화하고, 선택의 결과를 은폐하여 책임을 박탈하며, 시스템 1을 표적으로 삼아 변론할 이성 자체를 마비시킨다.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선택', '야훼와의 변론'은 히브리 사상의 개별적 특징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존재・결단・관계가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하는 '통전적 인간론'에 뿌리를 둔다. 알고리즘 넛지가 인간의 무의식과 감정만을 파편적으로 자극하여 자율성을 해체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리터러시 역시 인간의 존재적 자각, 윤리적 결단, 공적 숙의가 동시 작동하는 '통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통전론은 알고리즘 시대에 파편화된 인간성을 전인적으로 재구성하는 필수적인 통합 프레임워크로 작동한다.

따라서 알고리즘 넛지에 대한 응답은 개별 기술적 처방으로는 불충분하며,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존재론적 재정초를 요구한다. 이하에서는 히브리 통전론의 세 핵심 개념-하나님의 형상, 책임지는 자유의지, 야훼의 변론-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며, 이 세 개념이 각각 넛지가 침해하는 세 층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1. 하나님의 형상: 존재의 도구화에 맞서는 '관계적 존엄성'

앞서 살펴본 히브리 통전론이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분해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한다면, 이 통전성은 어디서 그 궁극적 근거를 얻는가? 그 답은 창세기의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선언에서 발견된다(Gen. 1:26-27). 히브리 인간학에서 통전성과 관계성은 분리된 두 속성이 아니라, 하나의 실재를 이루는 두 얼굴이다. 인간은 몸과 영혼이 통합된 존재이며, 동시에 그 통합성은 하나님, 타자,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만 실현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 관계적 통전성의 존재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외형적 유사성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 구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구약 신학은 이 형상을 세 차원으로 이해해 왔다(Wenham, Park trans., 2000: 124-129; Boyd & Eddy, Park trans., 2014: 175-198). 첫째, 구조적 형상(structural image)은 인간에게 부여된 이성, 도덕적 판단력, 창의성 등의 능력을 지시한다. 둘째, 기능적 형상(functional image)은 "다스리라"는 명령에 나타난 청지기적 책임을 의미한다(Gen. 1:28). 셋째, 관계적 형상(relational image)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복수형 표현이 시사하는 바, 하나님

자신이 관계적 존재이며 인간 또한 그 관계성을 반영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뜻한다(Gen. 1:26).

이 세 차원 가운데 AI 시대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관계적 형상이다. 왜냐하면 구조적 형상(추론 및 창작 능력)은 이미 AI가 상당 수준 모방하고 있으며, 기능적 형상(관리 및 통제) 또한 알고리즘이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적 형상인 하나님, 타자, 그리고 세계와의 응답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능력은 어떤 알고리즘도 모방할 수 없는 인간 존엄의 최후 지평이다. Karl Barth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Gen. 1:27)를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정의(definition)가 아니라 설명(exposition)으로 해석했다(Barth, 1958: 184-197). 즉,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 곧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에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이후 현대 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 신학의 지배적 흐름이 되었다(Moltmann, Kim trans., 1987: 258-267; cf. Grenz, 2001).

그런데 알고리즘 넛지는 바로 이 관계적 형상을 정교하게 침해한다. 넛지는 인간을 관계 안의 응답적 주체로 보지 않고, 고립된 데이터 포인트로 처리한다. 개인화 알고리즘은 각 사용자를 자신만의 필터 버블 안에 가둠으로써(Pariser, H. Lee & J. Lee trans., 2011: 14-17), 타자와의 진정한 만남과 상호 응답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최적화된 콘텐츠 스트림 속에서 관계 속의 인간이 아니라 소비 패턴의 집합체로 재정의된다. 이는 히브리 통전론이 거부한 인간의 분해가, AI 시대에 훨씬 정교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알고리즘 넛지는 단순히 인간의 선택을 조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 인간 존엄성의 뿌리를 흔든다.

이 지점에서 '관계적 하나님의 형상'은 알고리즘 넛지 비판의 결정적 응답을 제공한다. 인간의 존엄은 개인이 소유한 어떤 속성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부르시고 인간이 관계 안에서 응답하는 그 사건 자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인간을 관계에서 분리하여 데이터로 환원하는 어떤 시도도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이 존재론적 통찰은 AI 시대 대학 민주시민교육이 왜 단순한 정보 리터러시를 넘어 통전적 리터러시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적 존엄성은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가? 서두에서 밝혔듯이, 존엄성은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도덕적 자율성, 곧 책임지는 자유의지를 통해 실현된다. 이하에서는 창세기 2-3장의 에덴 서사를 통해, 이 자유의지가 알고리즘 넛지의 은밀한 조정에 어떻게 성서적 대안이 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생명의 선택: 은밀한 조정에 맞서는 '책임지는 자유의지'

창세기 2-3장의 에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죄의 이야기' 또는 '인류 타락의

이야기’로 읽혀 왔다. 이러한 해석은 기독교 죄론과 구원론의 형성에 중요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본문을 인간학적 관점에서 재독해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이 본문이 죄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Gen. 2:16-17)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천사를 경비원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지 않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감시와 강제가 아닌, 명령과 위임이라는 방식을 취하신 것이다. 인간학적 관점에서 선택 가능성과 스스로 결단하는 능력은 인간 존재의 핵심적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Wenham, Park trans., 2000: 212). 선택할 수 없는 존재는 도덕적 존재가 아니다. 로봇이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선택이 없는 곳에 책임도 없고, 책임이 없는 곳에 존엄도 없다. 바로 이 부분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나 실제로는 설계된 방향으로 은밀히 행동을 유도하여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을 박탈하는 알고리즘 넛지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철학자 Immanuel Kant에 따르면 자율성은 도덕성의 근거이다(Kant, 1911: 4:440). 스스로 입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만이 진정한 도덕적 주체이다. 에덴 서사는 수천 년 전에 이 통찰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뱀의 유혹으로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고, 아담도 하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게 된다. 그 후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시고(Gen. 3:9), 또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다(Gen. 3:11).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셨을 리가 없다(Wenham, Park trans., 2000: 197).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묻고 계시는가? 이것은 책임의 언어이다.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먼저 들으셨다.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Gen. 3:12). 이 대답은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하와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을 유혹한 뱀에게 넘긴다. 아담과 하와의 반응 자체가 인간이 선택의 존재임을 역설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선택의 주체가 아니라면 책임을 회피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구약 성경은 에덴 서사에 국한되지 않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언약적 촉구(Deut. 30:19),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결단 요청(Jos. 24:15),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

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는 엘리야의 호소에 이르기까지(1Ki. 18:21), 결과를 명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결단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자유의지의 모델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이 성경적 인간상은 알고리즘 넛지가 구축하는 인간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알고리즘 넛지는 인간을 선택의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설계된 경로로 유도되는 수동적 대상으로 전제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결과를 인지하고 응답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전제한다. 전자가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활용하여 결정권을 설계자에게 이양시키는 구조라면, 후자는 인간의 결단 능력을 신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구조이다.

알고리즘 넛지가 유도하는 선택 환경은 사용자의 인지적 편향을 악용하여 즉각적인 욕구 충족만을 추구하게 만든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감정적·직관적 반응(시스템 1)을 표적으로 삼아 인간의 장기적 자율성을 마비시키는 '수동적 결정론'에 불과하다. 반면, 구약 신학의 '생명의 선택(Deut. 30:19)'은 단순한 종교적 계율 순응이 아니다. 이는 무의식적·자동적 반응을 멈추고(시스템 2의 개입), 자신의 선택이 초래할 윤리적 결과와 공적 영향을 명확히 인지하여 내리는 '성찰적 결단'이다. 따라서 통전적 리터러시에서 '생명의 선택'이란,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기본값과 추천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으로 개입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공적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디지털 행동을 주체적으로 재설계하는 윤리적·존재론적 결단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러한 책임 있는 결단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고, 주어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하다면 상대와 논쟁을 통해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이성적 숙의의 역량이다. 이제 우리는 이 숙의 역량이 성경적 인간학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구약 선지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야훼와의 변론' 모티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야훼와의 변론: 이성적 마비에 맞서는 '합리적 숙의 역량'

구약의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결단을 촉구한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말하는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그들은 강요하지 않고 초대한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Is. 1:18)

'변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yāḵaḥ*)는 단순한 대화나 논의를 넘어서는 법정적 용어로서 법정에서 논쟁하고 변론하자는 뜻이다(Hartley, 1997: 434). 구약학계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이러한 선지서의 담화 형식을 '언약 소송(covenant lawsuit; *rîb*)'이라는 독립된 문학 장르로 규정해 왔다.[1] 물론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 전통에서도 신들과 인간의 소통은 다양한 형태로 존

재했으나, 이러한 소통은 대체로 특정 개인(왕, 현자, 사제)에 국한된 사적 계시이거나 신들 사이의 내부 협의로 이루어졌다(Pritchard, 1969). 이에 비해 히브리 성서에서 야훼는 자신의 언약 백성 전체를 공적 변론의 자리로 초대하는 독특한 담화 형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Is. 1:18)는 언약 공동체 전체를 향한 공개적 논쟁의 초대이며, 그 궁극적 지향은 대립이 아닌 관계 회복이다.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일방적 통치나 은밀한 계시가 아니라, 공동체적, 법정적 담화를 통한 관계 회복을 지향함을 보여준다.

Walter Brueggemann에 따르면, 구약신학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핵심증언’과 ‘반대증언’이 서로를 취소하지 않은 채 긴장 가운데 서 있다(Brueggemann, H. J. Ryu & H. Y. Ryu trans., 2016: 207-210, 516-519). 이스라엘은 야훼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하여 항변하고 반대신문하는 자로 등장하고, 야훼는 이러한 진술과 반박, 탄원과 고발에 응답하시는 대화의 상대자이시다. 하나님이 인간과 변론하시고 인간의 반대증언조차 정경 안에 보존하신다는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성적으로 묻고 논증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존재임을 뜻한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적 숙의 역량은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서 억압되어야 할 오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시는 관계적 능력이다.[2)]

바로 이 지점에서 야훼의 변론을 알고리즘 넛지의 인간관과 비교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알고리즘 넛지는 인간에게 “변론하자”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변론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시스템 2를 우회하여 시스템 1을 표적으로 삼는다(Thaler & Sunstein, 2009: 17-22; Kahneman, 2011: 20-30, 39-49). 알고리즘 넛지 설계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설계 의도를 밝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그 설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담화의 자리 자체를 마련하지 않는다. 이는 야훼의 변론이 전제하는 인간관과 구조적으로 상반된 지향을 드러낸다.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조차 인간의 이해와 응답 앞에 내놓으시며, 서로 변론하자고 초대하신다. 여기에는

1) 언약 소송은 고대 근동의 종주-봉신 조약 언어를 차용한 형식으로서, 이 패턴은 주요 선지서(Is. 1:2-3, 18-20; Jer. 2:4-13)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Huffmon, 1959: 285, 287-293).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법적 판결(*mišpāṭ*)의 경우는 제3자인 재판관을 매개로 하는 삼자 구조(trilateral structure)의 판결 절차인 데 반해, 이와 달리 언약 소송(*rîb*)은 두 당사자 간의 직접적 대화를 통해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양자 구조(bilateral structure)의 화해 절차로 구별된다(Bovati, 1994: 30-33).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야 1장 18절을 다시 읽으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언약적 논쟁으로의 공식 초대임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먼저 논쟁의 자리로 부르신다. 이것은 히브리 성서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관계 맺기 방식이다.

2)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항변 장면은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Gen. 18:25)라며 하나님과 논쟁한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항변을 무례로 여기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응답하시며, 아브라함의 논리적 요청을 하나씩 수용하신다(50인 → 45인 → 40인 → 30인 → 20인 → 10인).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논쟁의 파트너로 인정하시는 성서적 인간관을 보여준다.

인간을 이성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신학적 신뢰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관계적 존엄(*imago Dei*), 책임지는 자유의지, 이성적 숙의(변론)의 세 층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인간론적 통전성을 이룬다. 알고리즘 넛지가 이 세 층위를 동시에 침해하듯이, 히브리 통전론은 이 세 층위를 동시에 회복시킨다. 이 통전적 회복이야말로 AI・디지털 전환 시대의 대학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존재론적 좌표이다.

Ⅳ. 대안적 민주시민교육 모델: 통전적 리터러시와 변론 공동체

1. 기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한계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디지털 및 알고리즘 리터러시 교육은 대개 두 가지 축, 즉 알고리즘의 기술적 작동 원리를 해명하는 인지적 이해 교육과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비판적 읽기 교육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 두 접근은 공통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의 확장이 곧 비판적 참여나 저항적 실천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학습자의 실행력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적 전제 자체에 내재된 이론적 결함에서 비롯된다(Buckingham, 2013: 35-68).

기존의 리터러시 교육은 인간을 합리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적 행위자로 상정해 왔으며, 이러한 전제는 인간을 파편화하여 다루는 근대적 환원주의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Buckingham, 2013: 35-68). 리터러시를 정교한 정보처리 기술로 협소하게 규정할 때, 교육 현장은 정작 알고리즘 넛지가 가장 강력하게 침투하는 삶의 전체 영역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 즉, 기존의 교육이 ‘무엇을 아는가?’라는 인식론적 차원에 머물렀던 반면, 알고리즘 넛지가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영역은 인간이 어떤 존재로 환원되고 조종당하는가라는 존재론적 차원에 속한다. 따라서 알고리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 중심의 교육을 넘어, 알고리즘에 의해 도구화된 인간을 회복하는 전인격적이고 존재론적 전환의 과정이 불가피하다.

2. 통전적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

이에 본 연구는 히브리 통전론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선택, 그리고 변론의 세 가지 핵심 개념을 리터러시 교육의 내재적 설계 원리로 제안한다. 통전적 리터러시가 기술적 숙련도를 넘어 인간의 존재 양식을 회복하는 다차원적 구성 개념이라는 점을 가정할 때, 세 차원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에 기반한 구조적・존재론적 통찰 차원이다. 이는 추천 알고리즘의 최적

화 목표와 데이터 수집 구조가 인간을 단순한 데이터 자원으로 환원시키는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다. 기존 리터러시 교육이 기술적 작동 원리의 해명에 머물렀다면, 통전적 리터러시는 인간이 알고리즘의 상품이나 수단이 아닌 고유한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자각하는 존재론적 각성에서 출발한다(Srnicek, 2017: 37-89; Buckingham, 2013: 35-68). 둘째, 생명의 선택에 기반한 주체적·윤리적 결단 차원이다. 이는 필터버블과 에코챔버가 유도하는 확신과 분노의 정서적 기제를 성찰하고(Rodilosso, 2024: 4-7),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기본값(default)에 순응하는 대신 주체적으로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앞서 살펴본 에덴 서사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앞에 울타리를 세우지 않으시고 선택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처럼, 인간은 알고리즘이 설계한 결정론적 경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 결과를 인지하며 스스로 결단하는 도덕적 주체로 서야 한다. 셋째, 변론 개념에 기반한 공적 숙의와 저항 차원이다. 이는 개인의 내적 성찰에 머무르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해 파편화된 공론장을 회복하기 위해 타자와 대화하고 이성적으로 논증하는 능력이다. 이사야 1장 18절의 '변론' 모티프가 보여주듯, 이는 알고리즘이 조장하는 확증편향과 혐오의 언어를 넘어서 공적 진실을 함께 모색하고 구조적 불의에 맞서는 공동체적 실천을 의미한다.

이 세 차원은 어느 한쪽으로 환원될 수 없는 상호 연계된 순환 구조를 이룬다. 존재론적 자각(*imago Dei*)은 윤리적 결단(생명의 선택)을 요청하며, 이러한 주체적 결단은 타자와의 공적 숙의(변론)를 통해 비로소 사회적 실천력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통전적 리터러시는 일회성 교육과정이 아니라, 알고리즘 시대의 인간성을 수호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설계로 구현되어야 한다.

3. 변론 공동체 구축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

통전적 리터러시가 개인 차원의 역량이라면, 그 역량이 사회적으로 발현되는 장이 바로 변론 공동체다. 이사야 1장 18절의 '변론'이 함의하는 것은 자유토론이 아니라 증거 제시와 상호 반증의 검토를 거쳐 자신의 입장에 공적 책임을 표명하는 논증적 대면을 뜻한다. 이 성서적·철학적 개념을 대학 교양교육 현장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절차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정보 비대칭의 의도적 노출이다. 학습자를 자신의 기존 필터버블과 완전히 대립하는 정보 환경(예: 상반된 정치·사회적 성향의 뉴스 큐레이션)에 전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이 소비해 온 정보가 전체 생태계의 일부에 불과함을 자각하게 만든다(Ekström et al., 2024: 878-882). 이는 알고리즘과 에코챔버가 의도적으로 은폐해 온 보이지 않는 바깥 세계를 가시화하는 존재론적 의식화 절차이다. 둘째, 증거 기반의 구조화된 발제와 숙의이다. 학습자는 주장을 전개할 때 명확한 출처와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의 논거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는 하버마스가 강조한 '더 나은 논거의 힘'을 강의실이

라는 공론장에 제도화하는 것으로(Ha, 2023: 53-94), 알고리즘이 무력화시킨 비판적 숙의 장치(시스템 2)를 의도적으로 복원하는 핵심 기제이다. 셋째, 공적 책임의 표명이다. 토론의 최종 단계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최초 견해가 토론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혹은 어떤 근거로 유지되었는지를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진술한다(Dewey, 1916: 87-115; Rodilosso, 2024: 4-7). 여기서 핵심은 의견의 변화 유무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대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를 체득하는 데 있다. 이는 결과를 명확히 인지한 주체가 스스로 결단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를 공적 절차로 재현한 것이다. 이러한 변론 공동체 모델은 개인의 확증편향을 교정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집단극화로 치닫는 사회적 에코챔버의 구조적 타성을 해체한다. 이질적인 관점들을 가진 참여자들이 반복적인 논증적 대면을 경험함으로써, 정치적 온건층이 소외되는 극단적 양극화 현상에 맞서 숙의민주주의의 건강한 실천적 기반을 재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통전적 리터러시를 통해 개인 내면에 회복된 전인적 통합은, 이 변론 공동체라는 사회적 형식을 거칠 때 비로소 알고리즘의 조종에 저항하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 목표로 완성된다.

이러한 이론적 요구에 부응하여 본 연구가 제안하는 '변론 공동체' 모델은 실제 대학 교양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4단계의 체계적 실행 절차와 객관적 평가 루브릭으로 구체화된다. 먼저 15주 과정의 1~4주차(1단계: 진단 및 의식화)에서는 개인별 알고리즘 피드를 분석해 필터버블을 진단하고 데이터 도구화 메커니즘을 비판함으로써 존재적 차원의 관계적 존엄성을 자각한다. 5~8주차(2단계: 의도적 노출)에는 자신과 상반된 매체에 의도적으로 노출되어 확증편향을 해체하고, 생명의 선택에 기반한 주체적·윤리적 결단력을 함양한다. 이어 9~12주차(3단계: 구조화된 변론)에서는 증거 기반 논증 서식 작성과 반대 입장을 재구성하는 롤플레잉 숙의를 통해 공적 숙의 역량을 체득하며, 13~15주차(4단계: 공적 책임 표명)에는 최종 입장에 대한 공적 진술과 성찰문 제출로 통전적 시민성을 완결짓는다. 나아가 본 모델은 학습자의 다차원적 성장을 검증하고자 '필터버블 인지 및 존재론적 성찰', '증거 기반 논증 및 비판적 숙의', '성찰적 입장 재정립 및 공적 책임성'을 핵심 평가 영역으로 설정하고, 단계별 정성 평가 루브릭을 통해 숙의 역량의 달성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AI 알고리즘의 넛지 메커니즘이 개인의 인식 환경과 의사결정 구조를 재편하여 민주적 숙의 역량을 침식하고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기존 연구나 정책은 기술 규제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인간이 왜 알고리즘의 선택 설계에 종속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규범적·존재론적 정초가 결여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히브리 통전론을

바탕으로 주체성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적 교육 모델을 정립하고자 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고리즘 넛지는 인간을 데이터 생산 단위로 전락시키는 존재의 도구화, 자유의 형식만 남긴 채 실질적 책임을 박탈하는 도덕적 자율성 상실 및 직관적인 시스템 1을 표적 삼아 성찰적인 시스템 2를 우회하고 마비시키는 이성적 숙의 침식이라는 삼중의 주체성 위기를 유발한다. 둘째, 이에 대응하여 창세기의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인간의 관계적 존엄성을 회복하고, 에덴 서사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 결과를 책임지는 주체적 자유의지를 도출하였으며, 이사야의 변론 모티프를 통해 이성적 숙의 역량의 신학적·철학적 원형을 복원했다. 셋째, 이러한 존재론적 기초 위에 통전적 리터러시를 세우고, 정보 비대칭의 노출, 증거 기반의 숙의, 공적 책임을 표명화하는 변론 공동체 모델을 대학 교양교육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본 연구는 AI 알고리즘이 넛지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하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파생되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존재론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기술 규제 논의가 결여하고 있던 존재론적 질문에 대해, 히브리 통전론을 도입하여 인간 주체성 회복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행동경제학의 넛지 비판, 성서적 인간론, 민주시민교육을 유기적으로 교차시켜 통전적 리터러시와 변론 공동체 모델이라는 교육 대안을 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이론적·실천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시한 후속 연구 및 교육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차원에서 코딩이나 팩트 체크 등 기능적 기술 중심의 기존 디지털 교육에서 벗어나, 비판적 숙의와 공적 책임을 체득할 수 있는 인문·신학 융합형 통전적 리터러시 교과과정을 제도화한다. 둘째, 실천적 차원에서 변론 공동체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강의실 내 구체적인 수업 모듈을 개발하고, 양극화 해소 및 공감 능력 제고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성을 검증하는 후속 실증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 및 학제적 차원에서 알고리즘 설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기술적 규제와 더불어 인간 존엄성의 근거에 대한 철학적·신학적 성찰을 정책에 반영하고, 기술공학, 인문사회학, 신학 간의 다학제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References

[Abbreviations]

Gen. : Genesis

Deut. : Deuteronomy

Jos. : Joshua

1Ki. : 1 Kings

Ps. : Psalms

Is. : Isaiah

Jer. : Jeremiah

[Primary Sources]

대한성서공회 (1998).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Translated in English) Korean Bible Society. (1998). *The Holy Bible: New Korean Revised Version.* Seoul: Korean Bible Society.

[Secondary Sources]

Barth, K. (1958). *Church Dogmatics III/1: The Doctrine of Creation*. G. W. Bromiley & T. F. Torrance (Eds.). T&T Clark.

Boyd, G. A., & Eddy, P. R. *Across the Spectrum: Understanding Issues in Evangelical Theology*. 박찬호 옮김 (2014). 복음주의 신학 논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Bovati, P. (1994). *Re-establishing Justice: Legal terms, concepts and procedures in the Hebrew Bible.* M. J. Smith, Trans. JSOTSup 105. Sheffield Academic Press.

Brueggemann, W.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류호준 & 류호영 옮김 (2016). 구약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Buckingham, D. (2013). *Media Education: Literacy, Learning and Contemporary Culture*. Polity Press.

Cho, E. (202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phased model for university convergence education in the AI era. *Journal of Convergence Education*, *12*(1), 145-175.

Chung, M. (2025). When knowing more means doing less: Algorithmic knowledge and digital (dis)engagement among young adults. Harvard Kennedy School. *Misinformation Review, 6*(5).

Craigie, P. C. (1976). *The Book of Deuteronomy*. NICOT. Grand Rapids: Eerdmans.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Macmillan.

Ekström, A. G., Madison, G., Olsson, E. J., & Tsapos, M. (2024). The search query filter

bubble: effect of user ideology on political leaning of search results through query selec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7*(5), 878-894.

Grenz, S. J. (2001).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 A Trinitarian theology of the imago Dei*. Westminster John Knox Press.

Hartley, J. E. (1997). "*yākaḥ*." W. A.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Vol. 2, pp. 434-437). Zondervan.

Huffmon, H. B. (1959). The covenant lawsuit in the prophet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8*(4), 285-295.

Jung, M. (2025). Reframing Civic Education in the AI Era: Through 'Civic Learning Praxis' and 'Educational Liminality.'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21*(4), 47-70.

Kahneman, D. (2011). *Thinking, Fast and Slow*. Farrar, Straus and Giroux.

Kant, I. (1911).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Königlich Preuß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ed.). *Kant's gesammelte Schriften* (Vol. 4, pp. 385-463). Georg Reimer.

Kuyer, P., & Gordijn, B. (2023). Nudge in perspective: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the ethical issues with nudging. *Rationality and Society*, *35*(2), 191-230.

Moltmann, J. *God in Creation: An Ecological Doctrine of Creation*. 김균진 옮김 (1987).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Nussbaum, M. C. (2013). *Political Emotions: Why Love Matters for Justic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ariser, E. *The Filter Bubble: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 이현숙 & 이정태 옮김 (2011). 생각 조종자들. 서울: 알키.

Pritchard, J. B. (ed.). (1969).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dilosso, E. (2024). Filter Bubbles and the Unfeeling: How AI for Social Media Can Foster Extremism and Polarization. *Philosophy & Technology*, *37*(2), 1-21.

Santoni de Sio, F., & Mecacci, G. (2021). Four Responsibility Gap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Why they Matter and How to Address them. *Philosophy & Technology, 34*(4), 1057-1084.

Srnicek, N. (2017). *Platform Capitalism*. Malden, MA: Polity Press.

Sunstein, C. R. (2014). *Why Nudge?: The Politics of Libertarian Paternalism*. Yale University Press.

Thaler, R. H., & Sunstein, C. R. (2009).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Penguin Books.

Wenham, G. J. *Genesis 1-15*. 박영호 옮김 (2000). 창세기 1-15. 서울: 솔로몬.

Wolff, H. W. *Anthropology of the Old Testament*. 문희석 옮김 (1976). 구약성서의 인간학. 서울: 분도출판사.

교육부 (2025). 이재명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5). *National Policy Tasks in the Education Sector Under the Lee Jae-myung Government*. Ministry of Education.

하상복 (2023). 하버마스의『의사소통 행위 이론』읽기. 세창미디어. (Translated in English) Ha, S. B. (2023). *Reading Habermas'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Sechang Media.